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Luke 19:10)

사역 소식: 2025년 10월

살롬! 사랑하는 친구와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여성 쉼터는 여전히 폭력을 겪은 여성들이 안전함, 따뜻함, 그리고 희망을 찾는 장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한 타이밍에 관한 두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레나가 안전과 새로운 시작을 찾았던 여성 쉼터의 이야기 하나와 텔아비브 거리에서 위기에 처한 젊은 여성 마리아에게 한 그릇의 수프가 사랑의 기적이 되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저희 여성 쉼터는 폭력을 겪은 여성들이 안전함과 따뜻함, 그리고 희망을 찾는 장소로 계속 섬겨오고 있습니다.

여기 10월 초에 있었던 한 이야기, 두려움으로 삶이 무너졌지만 은혜로 만져진 엘레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전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어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곧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 중독, 정신적 불안정, 그리고 폭력이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통제와 위협 속에서 살며 매일처럼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움키푸르 직전에 그녀는 도망나와 경찰서에 갔습니다. 절기로 인해 모든 보호소가 문을 닫고 있었기에, 한 사회복지사가 급히 저희에게 전화를 했고 — 그렇게 엘레나는 저희 브엘세바 보호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살이 달린 경찰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 연약하고 지쳐 있는 여성을 보았을 때, 저는 그냥 그녀를 안아 주었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가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안에, 그녀는 다시 먹고, 잠들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꼭 필요한 장소를 만드셨네요.”

엘레나는 가능한 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저희는 그녀가 짐을 꾸리는 것을 도와주고 공항까지 동행했습니다. 이제 엘레나는 가족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요. 정말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줘요!”

엘레나의 이야기와 같은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타이밍을 상기시켜 줍니다.

단 이들의 돌봄과 평안이라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쉼터의 사역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엘레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녀에게 이사간 도시에 있는 예배 공동체 연락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신자들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 보호소 관리자 타티야나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한 그릇의 수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

지난주, 아비브 센터를 위한 장보기를 마친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러 아내가 만든 수프를 좀 가져가야 할까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몰랐지만 — 그냥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모두 아비브 센터에 도착해 함께 기도하고 텔아비브 거리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센터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수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은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수프... 혹시 집에서 만든 수프가 있나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수프를 가져와야 했는지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수프를 가져오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 바로 당신을 위해서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프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있네요.”

마리아는 28세이며 약물 중독 상태입니다. 임신 7개월입니다. 그녀가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녀와 함께 앉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 그녀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녀의 필요를 이미 아셨다는 것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돌보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저는 중독되어 있고... 제 아기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여성들을 위한 재활센터와 그녀 같은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 예수아(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 마리아와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완전한 치유와 자유로 이끌어주시기를!

(자원봉사자 이갈)

더 많은 소식과 기도 제목:

아랍 재활 센터

새 아랍 재활 센터를 위해 임대할 계획인 건물의 주인이 센터의 특별한 필요에 맞추기 위한 개조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입주하여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완료되고 주님의 완벽한 때에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켈론 아웃리치

이번 달, 저희는 새 이민자들과 함께 첫 번째 친교 모임을 가졌으며, 주제는 성경적 절기인 초막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절기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민자들이 직접 가져온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집과 같은 분위기를 즐겼고 —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모임들을 어떻게 계속 이어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성장하고 있는 이 교제 모임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사역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편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 된,
도브와 올가 비카스
그리고 아비브 사역 팀 일동



dovbikas@gmail.com

더 자세한 내용과 후원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www.avivministry.com)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Aviv Ministry Israel



Aviv Ministry



avivministry

P.O.Box 1181 • Arad 8911002 • Israel • Tel/WhatsApp: +972-544-997336